

특별선교주일

세계성찬주일

사랑으로 살아가다: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

— 히브리서 1:3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세계성찬주일

사랑으로 살아가다: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클라우딘 리어리 목사는 르완다 마을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닌 몇 안 되는 아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르완다 국립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내전이 르완다를 휩쓸었고 끔찍한 대량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리어리는 르완다를 탈출해 수년간 여러 난민 캠프를 전전하며 살아났습니다. 캠프에서는 교육을 마칠 기회가 없었지만, 그녀는 마침내 방법을 찾았습니다.



클라우딘 리어리 목사(흰색 상의)가 그녀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 와토토리즈(Watoto Reads)가 학교를 세운 난민 캠프에서 학생들과 함께한 모습. (사진 제공: 클라우딘 리어리)

클라우딘은 세계성찬주일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연합감리교회들이 함께 드리는 세계성찬주일 헌금으로 마련되며, 고등교육 후원을 위해 평균 50명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 장학금은 직접적 수혜자로 꿈과 소망을 이루게 될 장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과정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녀는 예수회 난민 서비스의 후원으로 짐바브웨의 아프리카 대학교에서 학부 1학년을 공부할 수 있었고, 그 후 연합감리교회로부터 추가 장학금을 받아 학부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 비자를 취득하여 MBA를 공부한 후 오하이오 감리교 신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오하이오연회에서 장로 목사로 안수받았습니다.

현재 리어리는 오하이오 감리교 신학교에서 개발 담당 이사로 일하고 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난민 캠프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교육 지원 및 옹호 활동을 위해 그녀가 공동 설립한 비영리 단체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계성찬주일 헌금은 미국 및 기타 국가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세계성찬주일 장학금과 전 세계의 포용성 제고, 다양성, 형평성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의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 기금은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와 고등교육국이 관리하며, 전 세계의 재능 있고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사용됩니다.

후원 방법:

체크 메모난에 “세계성찬주일”이라고 적어 소속 교회에 헌금하세요. UMC.org/SSGive 에서 온라인으로 후원하시거나 월 정기 후원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